

KIA 이민우 “중간투수도 재미있다”

개막 10경기 선발등판 3패1홀드 평균자책 8.47 ‘신에 우완’
최근 불펜투수로 호투 “팀 원하는 보직 아무거나 상관없어”



“중간투수도 재미있습니다.” KIA 신에 우완 이민우(26)가 작설하게 1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개막 후 10경기에 출전해 3패1홀드, 평균자책점(ERA) 8.47을 기록하고 있다.

승리와 세이브도 없는 부진한 성적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펜투수로 호투를 이어가며 KBO리그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개막 초반에는 선발투수로 발탁

을 받아 성공하는 듯 했다. 삼성과의 첫 경기에 6이닝 4실점 투구로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홈런 군단 SK를 맞아 두 번째 선발등판했으나 1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다. 이후 한화와의 세

번째 경기는 선발투수의 비활을 잇는 추격조로 3이닝동안 4실점했다.

결국 선발투수 보직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사이 한승혁이 성공적으로 선발투수로 변신하고 임기영이 돌아오면서 선발진이 완성됐다. 추격조도 아니었다. 대신 적게는 한 타자, 많게는 1이닝까지 소화하는 불펜투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본격적인 불펜투수로 바뀐 이후 6경기에서 달린 공을 던지고 있다. 실점은 단 한 경기. 5경기는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6경기 평균자책점(ERA)만 따진다면 2.70을 기록하고 있다.

불펜투수로 점점 존재감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세현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이민우의 쓰임새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막 초기에 비해 구위가 달라졌다. 직구의 평균속도가 2~3km 정도 높았고 슬라이더, 투심,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도 각이 좋아졌다. 이민우는 “윌리스포인트에서 볼을 좀 더 눌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잘 되면서 볼도 빨라지고 변화구도 좋아졌다. 그러나 가끔 안될 때도 있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우는 “선발투수도 할 만했지만 중간에 등판하는 것도 재미있다. 선발이든 중간이든 팀이 원하는 보직이면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지금은 중간 투수이니 팀의 승리를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비활을 밝혔다.



이천수 대표선수 모든 조건 충족? 한국 참가한 역대 9번 월드컵 이색기록 정리

2018 러시아월드컵 개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1954년 스위스 대회부터 2014년 브라질 대회까지 한국이 참가한 9번의 월드컵에 얽힌 이색 기록을 대한축구협회가 정리했다.

태극마크는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 본선 참가는 더 큰 영광이다. 지금까지 144명의 한국 선수가 '가문의 영광'을 누렸다.

한 번 참가도 어려운 월드컵에 네 번이나 나간 선수도 있다. 홍명보(대한축구협회 전무)와 황선

박규정이다. 1915년에 태어난 수비수 박규정은 당시 39세 2개월의 나이에 첫 경기 헝가리전에 출전했다. 2위와 3위도 1954년 대회에 나간 정국진(37세6개월)과 정남식(37세5개월)이다.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는 유독 노장들이 많았다. 6.26동란으로 선수 육성이 불가능해 일제 강점기와 광복 직후에 활약한 선수들이 다시 참가했기 때문이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로만 한정하면 이문재(37세2개월·2010), 최진철(36세3개월·

1954년부터 지금까지 144명 한국 선수 월드컵 출전
홍명보·황선홍·이문재 4회 최다...이동국 최연소

홍(전 FC서울 감독), 이문재(수원 삼성 코치) 등 세 명이다. 홍명보와 황선홍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부터 2002년 한·일 대회까지 4회 연속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문재는 1994, 2002, 2006, 2010년 대회에 참가했다.

3회 출전한 선수도 6명이나 된다. 김주성(1986·1990·1994), 박지성 이영표 김남일 안정환(2002·2006·2010), 박주영(2006·2010·2014)이다.

가장 어린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밟은 선수는 이동국(전북현대)이다. 이동국은 만 19세8개월이던 1998년 프랑스 대회 네덜란드전에 출전했다. 고교 졸업 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지 4개월 만이다. 2위는 같은 프랑스 대회에 참가한 고종수의 19세8개월, 3위는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 났 김주성의 20세5개월이다.

월드컵 역대 최고령 선수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한

2006), 안정환(34세5개월·2010) 순이다.

한국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1954년 대회가 30세8개월로 가장 많았다. 반면 1986년 멕시코 대회는 26세3개월로 가장 적었다. 지금까지 참가한 9개 월드컵 대회의 평균은 27.3세다. 4강 신화를 쓴 2002년 월드컵의 태극전사들 나이가 정확히 평균에 해당하는 27년3개월이다. 축구 선수의 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27~28세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셈이다.

참가 선수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부평고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정윤 이명생, 김남일, 이근호 등을 배출했다. 출신 대학은 고려대(보성전문 포함)가 26명으로 최다다. 대회 참가 당시 소속 팀으로는 울산현대가 24명으로 제일 많다. 최다 배출 고교·대학·프린팅에 모두 해당하는 선수는 이천수(Jtc 해설위원)다.

박지성, 러시아월드컵 해설한다

SBS와 계약

축구스타 박지성(37)이 2018 러시아월드컵 해설자직에 앉는다.

SBS는 박지성이 러시아월드컵 기간 해설위원으로 활동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은퇴 이후 박지성이 정식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성은 “해설에 대한 제안을 오래 전부터 받았고 행정가로서의 장래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도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응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JS컵 대회의 주관 방송사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SBS와 ‘한국 축구의 부흥’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선수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온 최고의 아나운서 배성재 캐스터와 ‘월드컵’이라는 공통분모



로 의기투합해 중계석에서 호흡을 맞추게 돼 기대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지성은 2006년 독일 대회와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도 대표팀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며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은퇴 후에는 축구 행정가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 축구 발전에 전념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유소년 축구대회 JS컵 개최와 AFC U-19 챔피언십 본선을 준비하는 대표팀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유소년대표부장으로 취임했다.

박지성은 16일 일식 귀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단일팀 혼풍 내친김에 평양에서 탁구 한판?

내일 평양오픈 한국 선수단 파견

“평양에서 봅시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더라도

주정철 북한탁구협회 서기장은 스웨덴 할름스타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가 끝난 뒤 북한으로 가기 전 대한탁구협회 박창익 전무를 만나 “평양에서 보자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박 전무는 “꼭 그러자”고 화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맞물려 탁구계에도 혼풍이 불고 있다. 대한탁구협회는 다음달 13일부터 5일 간 평양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챌린지 투어에 선수들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평양오픈에 한 차례도 출전한 적이 없다. 걸려온 남북관계에서 평양 대회 참가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참가국을 평양으로 불러들일 권한이 있는 북한 역시 한국에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남북 여자단일팀이 꾸려지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한국과 북한은 협상 테이블을 차린지 한 하루도 안 돼 단일팀을 성사시켰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이 평양오픈 초청장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선수권을 통해 단일

팀의 파급력을 눈으로 확인한 ITTF도 한국의 평양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평양오픈이 될 것”이라면서 “평양오픈 엔트리가 5월14일 마감된다. 그 전에 빠른 협의를 통해 초청장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8월로 예정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일팀을 추진 중이다. 성사되면 합동훈련은 필수다.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평양오픈 출전은 자연스럽게 합동 훈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평양오픈에 불꽃을 트면 7월 코리아오픈에 북한 선수들의 참가 또한 가능하다.

평양오픈은 슈퍼시리즈로 열리는 한국의 코리아오픈보다 두 단계 낮은 챌린지 투어다. 하지만 대한탁구협회는 대회 규모에 관계없이 최정예 멤버를 파견할 예정이다.

박 전무는 “한국의 첫 평양 대회 출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아시안게임 출신 선수들이 나서지 않겠느냐”면서 “아시안게임 단일팀을 위한 합동훈련까지 고려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정현, 세계 44위에서 마드리드오픈 1회전 탈락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1위)이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은 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44위 로빈 하세(31·네덜란드)에 0-2(2-6 0-6)로 완패했다.

지난 1월 ASB클래식부터 지난주 BMW오픈까지 7개 대회 연속 8강 진출 행진을 벌였던 정현은 8개 대회 연속 8강행에 실패했다. 1세트 게임스코어 2-2로 맞선 상

황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주며 주춤했던 정현은 이후 3게임을 내리 헌납했다.

정현은 2세트에서는 한 게임도 따지 못한채 54분 만에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서브에서 흔들린 것이 아쉬웠다. 하세가 더블볼트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반면 정현은 5개를 쏟아냈다.

정현의 1세트 첫 서브 성공률은 37%에 그쳤고, 첫 서브가 들어갔을 때 포인트를 올린 확률도 55%에 불과했다. 반면 하세는 첫 서브 성공률 63%, 첫 서브가 성공시 득점 확률 67%를 기록했다.

2세트에서 정현은 첫 서브 성공률 78%를 기록했으나 첫 서브 성공시 득점 확률이 36%에 그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오승환, 토론토 마무리 되나

여성폭행 오수나, 행정적 휴직...1순위 후보로 꼽혀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마무리 투수인 로베르토 오수나(28)가 폭행 혐의로 체포돼 전력에서 이탈했다.

미국 MLB닷컴은 9일(한국시간) 폭행 혐의로 체포된 오수나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상 휴직(administrative leave) 선수로 분류돼 25일 로스터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오수나는 여성을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오수나는 6월19일 토론토 법정에 선다.

토론토 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린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구단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수나의 행동은 우리 구단의 가치와 상반된 것”이라며 “토론토 경찰이 아직 조사하고 있는 사이이어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선수에 대해 최대 7일 동안 행정적 휴직을 시킬 수 있다.

오수나의 로스터 제외 기간에 대해 앳킨스 단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일을 다 채울 수도 있고, 7일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15년 바리그에 데뷔한 오수나는 첫 해부터 20세이브(1승6패)를 수확했다. 2016년 36세이브(4승 3패) 평균자책점 2.68, 지난해 39세이브(3승 4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해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에는 15경기에서 15%이닝을 소화하며 9세이브, 평균자책점 2.93의 성적을 거뒀다.

오수나의 이탈로 토론토는 당분간 ‘임시 마무리’를 내세워야 한다. 존 기븐스 토론토 감독은 오수나의 빈 자리를 메울 마무리 후보로 테일러 클리퍼드를 언급했다.

이들 중 2016~2017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된 경험이 있는 오승환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서 3년간 통산 40세이브를 거뒀다. 오승환은 올해 16경기에서 15%이닝을 던지며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76을 기록했다.